

## 자칭린 중국 政協주석 접견

최근 고구려사 문제가 양국간에 논쟁거리로 제기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. 이 문제로 인해 잘 발전돼온 양국관계가 훼손돼서는 안 됩니다. 우리는 이 문제를 감정적 대립이 아니라, 이성적 대화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. 양국 정부와 국민 모두 미래를 내다보면서 문제를 풀어갑시다. 양국 국민과 지도자는 이만한 일을 건설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중국정부가 한국 국민과 정부의 생각을 충분히 인식하여 양국 정부간 합의에 따른 신속하고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.